

성경으로 바라본 인간의 독특성

인본주의적 인간관과 성경적 인간관 비교

이명진 2026301030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인본주의적 인간관
 - 2.1 인본주의의 등장
 - 2.2 인본주의의 세 분파
 - 2.3 기술인본주의
 - 2.4 데이터교
3. 성경적 인간관
 - 3.1 인간의 독특성: 하나님의 형상
 - 3.2 타락과 인간의 혼란
 - 3.3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사명
 - 3.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4. 비교 분석
 - 4.1 인간의 독특성의 근거
 - 4.2 인간의 목적과 사명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증명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일련의 시험이다. 사회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학교라는 시스템은 성적을 통해 가치를 평가한다. 직장이라는 시스템은 성과를 통해 가치를 평가한다. 이처럼 시스템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 묻는다. 또한, 시스템에 적응한 개인은 스스로에게 가치 증명을 요구한다. 대학생은 학교의 이름을 통해 가치를 증명한다. 직장인은 직장의 이름과 직위를 통해 가치를 증명한다.

가치를 증명하는 삶은 깊은 불안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는 경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해 소수가 살아남고 다수는 도태된다. 살아남은 소수는 그들끼리 경쟁을 한다. 도태된 다수도 패자부활전을 치른다. 결국 경쟁의 구조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우리 모두 반드시 우리의 무가치함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또한 우리가 가치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호모데우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하는가?”** 인간이 무엇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 인류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하지만, 어떤 시대에도 절대 불변하고 확고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의 시스템은 언제나 대부분의 인간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

우리는 『호모데우스』를 통해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증명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유발 하라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2. 인본주의적 인간관

2.1 인본주의의 등장

유발 하라리는 인본주의의 시작을 근대성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근대성은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은 인간이 힘을 가지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¹⁾

근대 이전의 인간은 신으로부터 의미를 찾았다. 신의 계획은 인간의 삶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했다. 동시에 신의 계획은 인간의 힘을 제한했다.²⁾ 신의 존재와 계획을 전제하는 한, 인간의 권리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근대 이후의 문화는 신의 계획을 부정한다. 인간의 삶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던 신의 계획은 더 이상 없다. 동시에 인간의 힘을 제약할 근거도 사라진 것이다.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던 절대자와 그의 계획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힘을 얻는 대가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인간은 성경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성경이 하던 역할은 자연과학의 몫이 되었다. 오늘날 과학 지식에 의하면 우주는 계획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다.³⁾ 인류는 계획도 목적도 없는 광활한 시간과 공간을 표류할 뿐이다. 둘째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인간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다. 심지어 고난이나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했던 신을 잃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렸다. 근대 이후의 세계에는 목적이 없다. 그저 원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인류는 선한 결말을 약속했던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 유발 하라리는 근대 이후 문화가 어느 때보다 **큰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한다.⁴⁾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혼란이 찾아왔다. 더 이상 질서를 부여하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의미가 없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었다. 유발 하라리는 인본주의를 근대 계약의 ‘면책 조항’으로 비유한다. 면책 조항의 내용은 우주적 계획에 바탕을 두지 않고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인본주의를 내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 본다.⁵⁾

인본주의는 종교적이다. 인본주의가 섬기는 신은 **인간**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대신,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의미와 권위는 항상 함께 다닌다.⁶⁾ 권위가 있어야

1)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277.

2)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278.

3)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279.

4)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280.

5) 사실 오늘까지 질서가 유지된 것은 근대의 면책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미의 근원이자 최종 권위가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의미의 근원이고 인간의 자유 의지가 최종 권위이다. 의미와 권위의 주인인 인간은 자신의 느낌과 욕망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성은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사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 인간은 의미를 상실했다.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불안**에 시달리게 됐고, 의미를 상실한 세상은 **혼란**스러워졌다.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미가 필요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을 세상에 의미를 부여할 새로운 신으로 선택했다. 인본주의에서 인간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신**이 된 것이다.

2.2 인본주의의 세 분파

유발 하라리는 이미 도래한 인본주의와 앞으로 도래할 인본주의로 구분한다. 이미 도래한 인본주의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크게 세 가지 분파가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독자적인 자아와 재생 불가능한 경험을 소유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들은 최고선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주의가 **유권자**를 신뢰하고, 자본주의가 **소비자**를 신뢰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신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마다 **욕망**⁸⁾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사회는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개인의 선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자유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민족주의**를 착안했다.⁹⁾ 각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민족적인 감수성을 형성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족적인 감수성 안에서 합의를 이루고,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또 다른 결함**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동 경험과 개인 경험** 사이에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항했다.¹⁰⁾ 두 분파는 인간이 의미와 권위의 근원이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에 대한 자유주의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이기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타인의 경험보다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세계 평화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달성되고, 사회 화합은 타인의 경험을 우선시할 때 달성된다고 주장한다.¹¹⁾ 사회주의자들은 욕망이 자아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욕망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급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욕망

6)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308-309.

7) 라영환 교수는 세속화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God)’로 정의한다.

8)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아, 심지어 영혼까지도 욕망으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9) 유발 하라리는 민족과 같은 공동체의 개념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10) 유발 하라리는 인본주의의 분파가 발생한 과정을 서술하며 사회 진화론에 기반한 해석을 시도한다.

11)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348.

이 세뇌된다고 보았다.¹²⁾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사회 다윈주의는 진화론에 근거해 인본주의적 갈등을 긍정한다. 진화에 있어서 갈등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자연선택을 유발하고, 결국 진화를 일으킨다. 진화론자들은 인간 안에 우열을 인정한다. 인간 간의 갈등과 억압을 통해 초인간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조차도 긍정한다. 전쟁은 자연선택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전쟁은 약한 자를 도태시키고, 강자에게 보상을 주며 진보하게 한다.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전쟁과 갈등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하지 않고, 초인류로 진화해 미래에도 살아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1914년에서 1989년까지 인본주의 세 분파는 치열한 **종교전쟁**을 치렀다.¹³⁾ 전쟁을 통해 결국 주도권을 잡은 것은 자유주의였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전쟁을 통해 다른 두 분파가 자유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세월들이 시간 낭비만은 아니었다. 그 시절은 우리에게 항생제, 핵에너지, 컴퓨터는 물론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프리섹스를 선사했다. 자유주의 자체가 경험을 통해 더 영리해졌고 한 세기 전보다 겸손해졌다. 경쟁자였던 사회주의와 파시스트들의 다양한 사상과 제도를 채택했다. 대중에게 교육·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알맹이는 바뀐 것이 없었다. 유권자와 고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대로 있었다.¹⁴⁾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패권을 잡은 것은 **정보화 시대**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¹⁵⁾ 하지만 자유주의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도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앞으로 도래할 기술 종교들은 인본주의라는 기성종교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본주의는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 감정, 욕망을 신성시**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인본주의 문명은 **인간의 수명, 행복, 힘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인본주의 기술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 기술들은 인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¹⁶⁾ **자유 인본주의와 기술 인본주의를 잇는 이 부분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 중 가장 흥미롭다.**

2.3 기술인본주의

12) 사회주의자들은 이타심의 회복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변혁보다는 계급 혁명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악의 원인을 인간 내부에 있는 죄성이 아닌 외부에 있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와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다.

13)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363.

14)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369.

15)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378.

16)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383.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종교를 소개한다. 바로, 기술인본주의와 데이터교이다. 그는 기술종교가 인본주의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약속(행복, 평화, 번영, 영생)을 이루어줄 것으로 전망한다.¹⁷⁾

기술인본주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와 같이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본다. 하지만, 기술인본주의자들의 목표는 기술을 이용해서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나은 인간 모델인 ‘호모데우스’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모데우스는 인간의 본질적 특징들은 그대로 보유한다. 하지만, 육체적·정신적으로는 향상된 초인간이다. 호모데우스는 향상된 능력으로 비의식적 알고리즘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다.¹⁸⁾

하지만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자유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술인본주의에도 두 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을 향상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인간을 퇴보시킬 것이다. 기술 인본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향상하려 한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마음을 개조하는 것이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한다.¹⁹⁾ 그 이유는 인류가 아직 마음의 영역과 마음의 지향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²⁰⁾ 그는 과학이 지금까지 연구해 온 마음의 영역은 ‘표준 이하’²¹⁾와 소위 ‘WEIRD’²²⁾라고 불리는 두 가지 영역이라고 말한다. ‘표준 이하’는 마음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며, ‘WEIRD’라는 표본도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도 없다. 그는 미래에 기술 발전한다면 마음의 지도를 완성할지도 모르지만,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지도가 완성되기 전에 마음을 향상하는 일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인간의 마음을 필요에 따라 재형성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은 집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기술의 진보로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막상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쉬워졌지만, 막상 만나게 돼도 친구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한다. 이처럼,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대규모 사회를 이루면서, 시스템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들은 발전하고, 그 밖의 능력은 도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정한 것처럼, 과학은 아직 마음의 영역과 목표를 밝혀내지 못했다.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마음은 정치적 필요와 시장의 힘에 의해 향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²³⁾ 이처럼, 인간이 호모데우스로 향상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능력

17) 기술인본주의는 우상의 특징을 보인다. 우상은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뤄주겠다는 거짓 약속과 거짓 보상을 제시한다.

18) 유발 하라리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와 공통점을 말하지만, 사실 기술인본주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와 가장 닮아 있다. 자연선택과 약육강식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19)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서울: 김영사, 2017), 483.

20) 성경과 자연과학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21) 표준 이하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 백년 이상 심리학자와 생물학자는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비교적 소위 ‘표준이하’인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의 지도는 자세하다.

22) ‘WEIRD’는 서구의(Western) 많이 배우고(Educated) 산업화되고(Industrialised) 부유하고(Rich) 민주적인(Democratic) 사회에 사는 사람들(WEIRD)을 의미한다. 저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과 경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서울: 김영사, 2017), 485.

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시스템의 기준에 맞게 퇴보되는 것이다.

기술인본주의의 **두 번째** 결함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인본주의의 전제와 기술의 향상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인본주의는 인본주의의 전제를 공유한다. 기술 인본주의도 인간의 의지에 대해 긍정한다. 기술 인본주의는 인간이 개발할 마음의 영역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마음의 영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의 욕망**이다.²⁴⁾ 바로 이 지점에서 인본주의의 전제와 기술은 양립할 수가 없게 된다. 인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이 선택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미래의 기술은 욕망 자체를 재형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개발할 마음의 영역을 선택해야 할까? **유발 하라리는 이에 대한 예시로 하나님을 믿게 된 동성애자는 동성애와 종교적 신념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상충한다고 예를 든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사역을 마음의 감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욕망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약속하는 기술인본주의는 종교적이고 우상의 특징을 보인다.**

인본주의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신념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단일한 자아가 있고,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²⁵⁾ 하지만, 욕망을 조절하는 미래 기술은 진정한 자아에 대한 신념을 흔들 것이다.

결국 기술인본주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처럼 **모순**에 봉착한다.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술에게 인간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술인본주의는 기술로 빼앗긴 인간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시도하면서 인본주의의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경험이 권위와 의미의 원천**이라고 믿으며, 잃어버린 의미와 질서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의 기술은 계속해서 인본주의의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4 데이터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기술종교** 중 하나인 **기술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하나인 **데이터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데이터교는 기술인본주의보다 **급진적**이다. 데이터교는 기술인본주의와 달리 인간을 창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술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기능에서 찾지는 않았다. 일단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만의 고유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더 뛰어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간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데이터교는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과감히 내려놓는다.**

그렇다면 데이터교는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결정할까? 데이터교는 이 질문

23)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495-496.

24)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25) 유발 하라리는 이에 대한 예시로 오늘날 많은 수의 상담가가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걸 도와줄 뿐이라고 말한다.

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인간의 경험은 그 자체로는 늑대나 코끼리의 경험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시를 써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풍성하게 한다. 이것이 인간의 데이터 조각들을 중요하게 만든다. (...) 따라서 우리가 경험을 분주하게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추세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시스템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는 경험을 하는 데 있지 않고, 경험을 자유롭게 흐르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있다.²⁶⁾

유발 하라리는 인간 사회가 ‘사실상’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왔다고 말한다. 데이터교의 **시스템도 기여도**로 가치를 결정한다. 데이터교의 시스템은 ‘데이터의 흐름’이다. 데이터교에 따르면, 우주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²⁷⁾ 따라서, 인간보다 데이터 처리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면, 인간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교는 인간을 창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교의 관점은 **진화론적 생명과학과 컴퓨터 과학이 연합되며** 시작되었다. 진화론적 생명과학자들은 **유기체를 알고리즘으로 보았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들은 **전자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냈다**. 데이터교는 전자 알고리즘을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적용했다. 두 알고리즘에 동일한 수학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사실 데이터교의 가정에는 **허점**이 많다. 언젠가 과학은 그 허점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허점이 드러난다고 해도, 데이터교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생명이 실제로 데이터의 흐름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결국에 유기체는 알고리즘이 아니었다고 밝혀질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의사결정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데이터교의 영향 아래서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은 의사결정 과정이 생명의 전부라고 여겨지고 있다. 결정을 내리는 데 감각, 감정,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감각, 감정, 사고의 유일한 존재의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데이터교는 의사결정 과정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왜곡된 생명관을 채용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데이터교가 착오이고 유기체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니라 해도, 데이터교가 세계를 접수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데이터교는 현재 모든 과학 분과로 퍼지고 있다.

26)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530.

27) 근대 이전에는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였다면, 오늘날은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이 주류이다. 데이터교는 우주를 데이터의 흐름으로 정의하며, 세상을 물질적이고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530.

모든 학자들이 똑같은 데이터교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면, 학제 간 교류가 그 패러다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 패러다임이 오류로 드러나도 그것에 저항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²⁸⁾

마치 곡성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느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악마를 만나러 가지만, 눈에 보이는 악마 앞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굳건히 붙들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이전에는 진리가 세상을 형성해 나갔다면, 오늘날은 세상이 진리를 재형성하고 있다. 이미 데이터교의 전제들이 많은 분과에서 받아들여지며 현실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데이터교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교가 교세를 얻으면 학문의 전통적 피라미드가 뒤집힐 것이라고 예측한다.²⁹⁾ 자원에는 **원재료, 에너지, 지식**이 있다. 데이터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식**이다. 그동안 인간은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고, 지식에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알고리즘**이었다. 하지만, 데이터교는 더 이상 그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제 막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인간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알고리즘을 대체할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데이터교가 예측한 미래는 암울하다. 데이터교는 **인류의 마지막 목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대체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다**. 인류는 ‘**만물인터넷 (Internet-of-All-Things)**’이라는 더 뛰어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과업을 달성하면, 가치를 상실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멸종**할 것이다.

결국 데이터교가 그리는 비전에 인간의 자리는 없다. 인간은 그동안 시스템이 요구하는 역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하지만 데이터교에 따르면, 인간이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만물인터넷’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목표** 때문이다. 인본주의는 **불멸, 행복, 신** 같은 창조 능력이라는 목표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결국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 알고리즘에게 자리를 위탁할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아는 **신탁**이 되면, **대리인**을 거쳐, 마침내 **주권자**가 된다.³⁰⁾ 주권자가 된 알고리즘은 인본주의 과제들을 폐기할 것이다. **인본주의에게 신은 인간의 힘에 걸림돌이었**

28)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540.

29)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504.

30) 유발 하라리는 점차 네비게이션에게 결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예로 든다.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467.

던 것처럼, 데이터교에게 인간은 만물인터넷의 힘에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데이터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인간을 점차 제거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은 가치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존재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³¹⁾

3. 성경적 인간관

3.1 인간의 독특성: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지금까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통해 인본주의의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 출현한 인본주의의 세 개 분파(자유주의·사회주의·진화론적 인본주의)와 미래의 기술종교들(기술인본주의, 데이터교)은 인간 이해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회를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인간의 가치는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예측한 미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갈수록 인본주의의 신념도 부정된다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신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간의 독특성**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흐릿해졌다.**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이고, 유기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술 문명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도 모호하게 했다.** 인간과 동물은 유기물이고, 유기물은 하나의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자 알고리즘인 기계와 마찬가지로, 동물과 인간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화론이라는 전제와 컴퓨터 과학의 알고리즘의 결합은 **점차 인간의 독특성을 상실해갔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독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전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발 하라리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진화론적 생명과학의 세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³²⁾

1. 과학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의로 수렴하고 있고, 이 교의에 따르면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며 생명은 데이터 처리 과정이다.
2. 지능이 의식에서 분리되고 있다.
3.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들이 곧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³³⁾

진화론자들의 전제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보다 독특하지 않은 존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의 전제로는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31)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항상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32) 세상의 문제점은 기준을 상실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경의 기준을 통해 우리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영적인 것에 치중돼 현실을 도외시켰고, 오늘날은 물질적인 것에 치중돼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둘 다 성과 속을 분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극단과 극단은 결국 만나기 때문이다.

33)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544.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전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유기체이자 알고리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인간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독특한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최홍석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원형을 반영하는 형상의 상(像)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원형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 최홍석 교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근거해 인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한다.³⁶⁾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이 있다.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진화론적 생명과학자들은 지능이 의식에서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³⁷⁾ 그들은 알고리즘이 의식을 학습할 수는 없으나, 고도화된 지능이 의식의 기능조차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도화된 지능도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다. 오직 의식을 가진 인간만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2 타락과 인간의 혼란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었다(창 9:6).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었다. 최홍석 교수는 창세기 9장 6절을 근거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창세기 9장 6절은 살인을 금지하는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³⁸⁾ 하지만 세 가지 기능 모두 죄로 인해 왜곡되었다.

34)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 (서울: 피톤치드, 2026), 247.

35)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76.

36) 이상웅, “최홍석의 개혁주의 인간론 고찰 - 하나님 형상(Imago Dei)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vol.52 (2016): 7-8. 참고

37) 호모데우스

38) 이상웅, “최홍석의 개혁주의 인간론 고찰 - 하나님 형상(Imago Dei)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vol.52 (2016): 8.

죄는 **통치권**을 왜곡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을 다스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인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달리 위임되고 제한적인 다스림이었다.³⁹⁾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피조물을 다스렸다.

죄는 **사회성**도 왜곡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요 17:22-23).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도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인간의 관계는 기능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랑과 희생보다는 미움과 착취가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죄는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했다.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였다. 책임 지는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를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른다. 언약의 내용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6-17)는 것이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이 있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했다. 라영환 교수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 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했다고 말한다.⁴⁰⁾ 결국 선악과 사건의 본질에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실한 인간은 정체성을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다.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상 죽은 자가 된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자 삶의 목적과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게 하는 고귀한 미덕들은 죄로 인해 상실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회복된다고 말한다.**⁴¹⁾

이러한 인간의 죄는 **인본주의의 도래**와도 관련이 있다. 유발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인간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⁴²⁾ 신은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었다. 행동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는 행동을 명령할 권위도 있었기 때문이다.⁴³⁾ 인본주의는 신이 담당하던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인간은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명령할 권위까지도 가지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판단과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것이다. 인본주의는

39)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서울: 피톤치드, 2026), 41.

40)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서울: 피톤치드, 2026), 43-44.

41) 헤르만 바빙크, *Magnalia Dei*, 박태현 역, 『하나님의 큰 일』(서울: 복 있는 사람, 2026), 298.

42)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서울: 김영사, 2017), 307.

43)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서울: 김영사, 2017), 308-309.

‘자율적인 존재’라는 인본주의의 이상을 제시했다.⁴⁴⁾

인본주의의 도래는 낯선 일이 아니다. 에덴동산에서의 죄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을 뿐이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죄**를 범했다.⁴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을 결정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는 여전히 스스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인간의 독특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3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사명

성경에서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에 지으셨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구와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다. 성경의 초점이 땅과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의 목적**은 아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영환 교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⁴⁶⁾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는 세상에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통치권, 사회성, 책임지는 존재**라는 **정체성**이 있었다. 사실이 세 가지 기능은 구분되나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영환 교수는 **통치권**을 중심으로 세 가지 기능이 유기적이라는 것을 밝힌다.⁴⁷⁾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다스림은 하나님을 닮은 특성**이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했다.** 그리고 인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서** 수 없었다. 이 지점에서 **다스림**은 다른 두 기능과 관련이 있다. 먼저, **다스림**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어나간다.**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다스림은 책임지는 존재**라는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인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을 정복하도록 지으셨다(창 1:26). 헤르만 바빙크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곧 ‘문화’라고 말한다.⁴⁸⁾ 그래서 창세기의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인간의 **다스림인 문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것만이 합법적인 권위가 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의 행사는

44) 알버트 그린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배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최악된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알버트 E. 그린,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역,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2009) 63.

45)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처음 등장한 죄이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죄는 교만이다.

46)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 (서울: 피톤치드, 2026), 247.

47)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 (서울: 피톤치드, 2026), 249-252

48) 헤르만 바빙크, *Magnalia Dei*, 박태현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26), 296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을 ‘청지기’로 비유한다. 참된 청지기는 자신을 부른 주인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죄악된 본성에 따라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대조 사회**로 부름 받았다. 안건상 교수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산 위의 동네’(마 5:14)라는 이미지로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름다운 대조 사회인 교회를 나타낸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다시 말해 인간은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를 위해서는 죄로 인해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한다.

3.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흠덩이에 생기를 불어 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 그로 인해 인간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흠덩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흠덩이에 생기를 불어 넣은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곧 바로 약속을 주셨다(창 3:15).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듯이, 타락 이후에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⁵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마치 빛이 있기 전 흑암 속에 덮인 세상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은 점차 실체를 드러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골 1: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면, 타락한 인간에게도 그분을 따라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모든 기능을 오염시켰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뜻을 알아도 행할 능력과 기뻐하는 마음도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

49) 안건상, 『선교적 성경읽기』(서울: 생명의학습사, 2020), 128.

50) 신학자들은 이를 통상적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지칭한다.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남’(다시 태어나는 것), 혹은 ‘새 창조’(새롭게 창조되는 것)라고 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명하셨고, 명령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수행되었다. 태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오웬에 따르면, 이 말씀은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영’ 즉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⁵¹⁾ 성령께서는 흙덩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다. 오웬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지음 받은 것이라고 해설한다.⁵²⁾

하나님께서 옛 창조에서 하신 역사를 새 창조에서도 하신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흑암과 사망 속에 있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후 4:6) 성령께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다. **유발 하라리가 앞서 지적한 욕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하며, 입맛이 바뀌는 것으로 비유한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은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창조 때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신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주셨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대조를 이룬다. 행위 언약 아래에서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

51) 존 오웬,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서문강 역, 『성령론 1』 (서울: 새언약, 2026), 245.

52) 존 오웬,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서문강 역, 『성령론 1』 (서울: 새언약, 2026), 248.

되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택하신 백성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신다.

회복된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시금 **의무이자 특권**이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오웬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복음적인 삶의 개혁’은 순서상 다음의 일입니다. (...) 열매는 나무의 성질을 따릅니다. 열매의 성질을 바꾸려면 **나무의 성질**을 바꿔야 합니다. (...)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삶의 개혁이 오는 것입니다.⁵³⁾

오웬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나무의 성질이 바뀌는 것으로 비유한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본성이 변화된 존재이다. 회복된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한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웬이 말하는 삶의 개혁이다. 성령에 의해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참된 의미의 삶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오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진행하신 방식은, 먼저 우리의 본성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둘 같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십니다. (...) 그 **은혜의 효과와 결과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⁵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은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않으신다. **죄의 원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은혜의 원리**를 통해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빚어가신다.⁵⁵⁾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3-14)이신 성령 하

53) 존 오웬,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서문강 역, 『성령론 1』 (서울: 새언약, 2026), 515.

54) 존 오웬,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서문강 역, 『성령론 1』 (서울: 새언약, 2026), 516.

55)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거듭난 자에게는 죄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공존한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죄의 원리만 있을 뿐이어서, 맺는 열매는 모두 죄의 열매일 뿐이다.

나눔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 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⁵⁶⁾

56)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 몸은 지쳐도 영혼은 매일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다.

4. 비교 분석

지금까지 호모데우스를 중심으로 인본주의와 미래에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입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4.1 인간의 독특성의 근거

인본주의는 인간의 독특성을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에서 찾았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인간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진화론의 대두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컴퓨터 과학의 알고리즘을 생명체에 도입하며 인간과 기계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고 말았다.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에 비해 가치 있거나,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회의 기여도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았다. 그래도 인본주의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부정했지만, 인간이 창조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가 예측한 미래 사회인 ‘데이터교’에서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종교는 인간의 독특성이 부정되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인간의 독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닮은 인간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는 존재였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인간이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4.2 인간의 목적과 사명

근대 이후 인간은 목적을 상실했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근대 이후 세계는 목적을 믿지 않고 원인만을 믿는다.⁵⁷⁾ 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으로 삼고, 인간을 위한 목적을 설정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원, 불멸, 행복과 같은 목표이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목표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터교는 인간이 인본주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결국 인간을 위한 인간의 목적은 ‘만물인터넷’을 만드는 인간의 사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유발하라리는 만물인터넷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은 가치를 잃고 멸종하고 말 것이라고 예측한다.⁵⁸⁾

57)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279.

58) 가치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로 이어진다. 유발 하라리,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성경은 인간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에서 찾는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인간의 사명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골 1:15). 그리고 회복된 인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⁵⁹⁾ 이것이 인간의 소명이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다. 선하신 주인께서는 명령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다. 회복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것이다.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럴 때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은 다시금 질서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이루고자 했던 불멸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실 것이다.

김영사, 2017), 521.

59)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 (서울: 피톤치드, 2026), 247.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무엇이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하는가?”라는 유발 하라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다. 먼저, 『호모데우스』에 나타난 인본주의의 세 분파와 저자가 예측한 미래 종교들의 답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치를 상실했다. 가치를 상실한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다. 하지만, 미래에도 인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팬잡은 직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인간의 모든 직업은 비유기적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미래는 우리의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가치를 증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전망은 사람들을 깊은 불안과 우울에 빠지게 한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릴 때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점차 웃음을 잃어간다. 많은 청소년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기여도로 결정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모든 인간을 가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실이 인간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 헤맸다. 결국 인간이 가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이 사실은 창조의 목적과도 연관이 된다. 인간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인간이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질서는 교회에서 먼저 구현되어야 한다. 교회는 대안공동체이다. 세상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니, 어쩌면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더 나은 대안을 보지 못하면,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와 달라야 한다.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사회는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교회는 순서가 다르다. 교회는 기여도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기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불러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한다.

참고문헌

Harari, Yuval Noah.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라영환.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 서울: 피톤치드, 2026.

안건상. 『선교적 성경읽기』. 서울: 생명의학습사, 2020.

이상웅. "최홍석의 개혁주의 인간론 고찰 - 하나님 형상(Imago Dei)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vol.52 (2016): 47-87.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Owen, John.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서문강 역. 『성령론 2』.
서울: 새언약, 2026.

Herman Bavinck. Magnalia Dei. 박태현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26.

알버트 E. 그린.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역.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2009.